

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경쟁률 전국 3위

의원정수 10명에 87명 등록 8.7대 1…국민의당이 더민주보다 많아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제20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이 약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전북지역 예비후보자 경쟁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정당별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유독 많고 특히 국민의당 예비후보자가 더민주당 예비후보자보다 많아 타 지역과 차이점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가장 많고 변호사와 교육자가 그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 대졸, 대학원 수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총 87명으로 의원정수 10명을 감안할 때 경쟁률은 8.7대 1이다.

이는 의원정수 3명인 제주(9:1)와 의원정수 1명인 세종(9:1)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로 의원정수 10명이상인 시·도 중에서

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전국(의원정수 258명) 평균은 6.5대 1이고 전북지역 다음으로는 전남의원정수 10명이 8.3대 1, 서울(의원정수 49명)이 7.4대 1, 인천(의원정수 13명)이 6.8대 1 순이다.

가장 낮은 경쟁률은 울산(4.7:1), 대구(5:1:1)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정당별 예비후보자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치중됐다.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 8명, 더민주당 24명, 국민의당 37명, 정의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3명이다. 호남권 예비후보자 중 광주광역시(의원정수 8명)의 경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는 한명도 없는 가운데 더민주당 13명, 국민의당 28명이고 전남지역(의원정수 10명)의 경우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21명, 국민의당 34명 등이다. 국민의당 예비후보자가 더민주당 예비후보자에 비해 많은 지역은 호남권 3지역(전북, 전남, 광주)을 제외하고 인천광역

시(의원정수 13명, 더민주당 17명, 국민의당 18명)가 있고 다른 지역은 더민주당 예비후보자가 국민의당 예비후보자 보다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직업별 분포는 국회의원, 정당인 등의 정치인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교육자가 그 뒤를 이으며 농업인과 의사도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현직 의원인 김윤덕 의원(더민주·전주시완산구갑), 이상직 의원(더민주·전주완산을), 김성주 의원(더민주·전주시전진구), 박민수 의원(더민주·무진강입실) 등이 있고 장제환 前 의원(제 18대 민주당·전주시완산구을) 등이 있다.

변호사로는 이기동 예비후보(국민의당·전주시갑), 엄윤상 예비후보(국민의당·전주시을), 조재숙 예비후보(국민의당·의산시을) 등이 있다.

교육자로는 박종덕 예비후보(더민주·전주시을), 이성호(국민의당·남원입실순창) 등이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만 예비후보(무소속·남원입실순창)와 의사출신이면서 고장군수를 지냈던 이강수 예비후보(무소속·정읍고장)도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교 졸(28명), 대학원 수료(8명)이 그 뒤를 이었고 중 졸(1명), 고졸(2명)이 가장 적은 수를 보았다.

전북지역 86명의 예비후보자 중 남성은 82명, 여성은 4명으로 여성대비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예비후보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70세가 17명, 40세~50세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연소 예비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인 송강 예비후보자(국민의당·김제부안·29세)이고 최연장 예비후보자는 前 전북도지사였던 유종근 예비후보(무소속·전주시갑·72세)이다.

/정영수기자

4.13 선거 RUN · RUN · RUN

정동영 예비후보, “김종인 대표 빛속 여당 틀 속에”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김종인 대표는 지금 잠시 끓는 아당에 와 있지만 사고방식은 빛 속 깊이 보수 여당의 틀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능사가 아니라며 북한 계열사를 주장해 전체 아음을 놀라게 했다. 김대중·노무현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부정한 것이다”며 “이런 김 대표의 행태를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 친노 패권주의자들로 한심하기는 미친거지”라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김 대표는 이3당 국회의원 39명이 나서 192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단칼에 종단시키고, 국민의 인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묵인했다. 스스로 개혁과 진보라고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행보가 어떻게 용인되고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정 후보는 “자기 편이 아니면 마구 흔들어서 낙마시키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어떤 잘못도 덮고 심지어 정체성을 부정해도 용인이 되는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행태가 이번에도 도와줘야 되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언필침 애원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당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당 통합을 거론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이후에나 생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기초연금 30만원’ 공약…노인층 표심잡기

올해 20만원 균등지급…2018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을 내걸고 4·13 총선을 위한 노인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민주의 기초연금인상 공약은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8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발표회에 참석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원을 공약했는데, 20만원으로 노인빈곤해소는 요원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성주기자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줘야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절대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정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총선공략단장도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부자김세만 처리해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조세부담률 적정화·조세체계 정상화 등을 진행한다면 서민층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보수층 표심을 위한 선심성 공약

일 뿐,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민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에는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할 6조4000억원의 추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복지제도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른 측면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이 확보될 수 없다”며 “재정조달 측면에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정치적 의지만 확고하면 어떤 형태로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놓은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30만원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재정의 출구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조세부담률 증가 폭이 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지만 있으면 재정조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

김원종 예비후보, 내일 청년들과 공개토론

국민의당 김원종 국회의원 예비후보(남원입실순창)가 지역 20대 청년 유권자들과 공약을 놓고 1대1 방식의 맞장구토론회를 갖는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선거사무실에서 남원·임실·순창지역 20대 유권자 60~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대기에게 청년정책 뜰어먹기’를 주제로 청년들과의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청년들과의 토론은 ‘어르신들에게는 안심을 청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김 후보의 제2차 공약발표 이후, 지역안과 별전방안에 관심을 가진 지역 청년들의 입장을 문의로 마련됐다. 김원종 예비후보는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관심과 긍정의 시각으로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소년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신이 팽배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최행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왕궁 종합 관광단지 조성

새누리당 최행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임기내 왕궁축산단지 매입과 악취문제 해결한 뒤 왕궁온천과 왕궁터, 미륵사지 등을 연계한 종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왕궁축산단지는 새 만금 수질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의 심각성

은 인근 지역은 물론 항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임을 강조한 뒤 “환경부·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지속사업으로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왕궁면 일원 15만3,000평 규모의 왕궁온천지구 개발과 함께 왕궁리 5층 석탑과 왕궁터, 미륵사지와 연계한 관광티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고민형 기자

국민의당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9일 오전 5시 삼천동 농수산물 경매시장을 방문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체험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전주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시다. 도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의 범위를 확대시

키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과 체험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삼천동과 용복동 일원에 365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친환경 무농약 ‘식물공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김호서 예비후보, “농촌 직불금의 범위 확대해야”



국민의당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9일 오전 5시 삼천동 농수산물 경매시장을 방문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체험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전주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시다. 도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의 범위를 확대시

키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과 체험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삼천동과 용복동 일원에 365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친환경 무농약 ‘식물공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Drone 종합타운’ 건설 공약



새누리당 양현섭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9일 전주 던전 지역에 탄소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전북지역의 지형 조건에 특화된 독자적인 Drone개발시설과 시민들을 위한 레저 스포츠 차원의 일반 Drone 경기장 등을 핵심 전국 최대규모의 Drone 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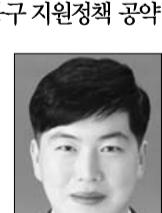
양 후보는 현재 Drone 산업은 사회 기반 자체를 진일보시킬 첨단 기술 분야인 것은 분명하지만, 먼저 Drone 자체의 기능 개선을 보완할 부가적 기술 인프라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Drone이 이미 등장한 만큼 전북탄소산업단지와 연계해 기술을 진일보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북의 지형과 도시 구조에 적합한 Drone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지역경제발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인프라 구성을 위한 측면과 시민들의 레저 스포츠 측면을 모두 담보하는 전용비행센터, 조종 교육기관, 체험장과 경기장, 그리고 부대시설을 갖춘 Drone 종합타운이 꼭 건설돼야 하고 반드시 유치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박종열 도의원예비후보,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공약



국민의당 박종열 익산 제4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익산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현상으로 2016년 2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는 186만 명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익산시 또한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여 1999년 최대 337,436만 명에서 2016년 2월 기준 301,872만 명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슈퍼맨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 셋 이상인 가정에 무상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고 굳게 약속했다.

/익산 장양원 기자